

'찬반 갈등' 서귀포시우회도로 원안대로 개설

공론화 추진단, 최종 정책 권고문 채택·제출 '왕복 4차로' 찬성 의견 66.7%로 가장 높아 6대 핵심 권고 포함... 도 "사업에 적극 반영"

서귀포시 우회도로를 당초 계획대로 왕복 4차로로 개설해야 한다는 최종 권고안이 제시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사업 공론화 추진단(이하 추진단)이 3개월 간의 시민 속의 과정 끝에 이같은 내용의 최종 정책권고문을 채택해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추진단은 간담회와 의제숙의 워크숍을 거쳐 3가지 대안을 도출한 뒤 성별·연령·거주지역 등 인구통계학적 요인을 고려해 무작위로 선정된 102명 시민참여단과 함께 현장 답사, 쟁점 토의, 대안 발표 등 속의

과정을 거쳐 최종 대안을 선택했다. 시민참여단 투표 결과 '환경과 도민이 공존하는 왕복 4차로 원안 유지 방안'이 66.7%로 가장 높았다. 이어 '술술 보존을 위한 노선 변경과 2차로 차로 축소방안' (22.5)%, '차로 없이 도시가치를 높이는 녹지 공원화' (10.8%) 순이었다.

추진단은 이런 투표 결과를 토대로 권고문에 원안대로 우회도로를 건설하는 대신 6가지 조건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6대 핵심 권고'를 담았다.

'6대 핵심 권고'는 공론화 결과 발표 후 30일 이내 사업 재개 일정

을 공표하고, 공사 기간 중 지역 주민과 정기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운영하는 등 이행 로드맵 마련을 포함해 ▷서귀포학생문화원 앞 지하주차장 및 안전한 지하보행로 조성 ▷술술 소나무·맹꽁이 등 자연환경 훼손 최소화 및 가로공원·녹지공간 확보 ▷학교 앞 등 하갯길 안전 확보 ▷환경영향평가 정밀 현황조사 결과 공유 ▷이행점 검위원회(가칭) 구성을 통한 도민 공개 보고다.

오영훈 지사는 이날 집무실에서 추진단으로부터 최종 정책 권고문을 전달 받았다. 오 지사는 "시민들이 치열한 속의 과정을 거쳐 최종 대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이번 공론화는 속의 민주주의를 실현한 성공 사례"라며 "최종 정책 권고문에 담긴 시민들의 뜻을 면밀히 검토해

사업 시행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고승환 추진단장은 "지난 3개월간 서로 다른 가치와 의견을 경청하며 사회적 합의의 접점을 찾는 속의의 시간을 가졌다"며 "이번 권고문은 아이들의 안전한 등하갯길 확보, 자연환경 보존, 도심 교통난 해소라는 가치를 조화시키기 위한 시민들의 노력이 담긴 결실"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귀포시 우회도로 개설사업은 서귀포여중에서 삼성여고에 이르는 총 4.2km 구간에 왕복 4차로를 조성하는 것이다.

그러나 시민단체가 일부 구간에 수령 100년이 넘는 술술이 포함돼 도로 개설시 훼손된다며 반발하는 등 찬반 갈등이 지속하자 제주도는 대안을 찾기 위해 그동안 속의형 공론화 과정을 밟아왔다. 이상민기자

축제로 물들이는 '풍성한 서귀포의 봄'

벚꽃·유채꽃·청보리·고사리축제·크루즈페스타까지 장관을 이룬다.

화사한 봄꽃의 향연이 3월말부터 4월까지 서귀포 전역을 물들인다.

25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제28회 서귀포 유채꽃국제경연대회'가 오는 28~29일 제주월드컵경기장을 중심으로 서귀포시 일원에서 펼쳐진다. 특히 올해 대회는 한·중·일뿐 아니라 홍콩, 러시아, 루마니아 등 해외 대표단의 참가로 국제적 영역을 더욱 확장한다. 5400명 이상이 사전 접수해 열띤 관심을 보이고 있다. 경기 행사는 양일간 각각 5·10·20km 3개 코스로 운영된다.

같은 기간에 서귀포시 동부지역인 성산읍 풍요정원과 신평리대포초 공원에서는 '제3회 신평벚꽃터널축제'가 열린다. 신평리마을회가 주최하며 3km가 넘는 벚꽃터널이

4월에도 벚꽃 축제와 관광 행사가 이어진다. 일정별 벚꽃 축제는 ▷서북전시관 일원 서귀포 벚꽃이 축제(4.3~4.5.) ▷표선면 가시리 서귀포 유채꽃축제(4.4~4.5.) ▷에래사자마을 벚꽃 나들이(4.4~4.5.) ▷서홍동 웃물교 벚꽃 구경(4.4~4.5.) 등 준비하다. 이어 ▷대정읍 가파도 청보리축제(4.17~5.17.) ▷남원읍 한남리 한라산정경고사리 축제(4.18~4.19.)가 잇따라 열리며 봄 축제의 분위기를 한층 돋운다. 여기에 4월 22일과 26일 강정항 인근에서 '2026 서귀포 크루즈 페스타'가 더해져 서귀포의 봄을 한층 풍성하게 만들 전망이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성산고등학교 체제 개편 유형 공식화

제주도교육청 어제 성산지역서 첫 설명회 IB DP·해양 직업계열 학과 2학급씩 운영

제주지역 읍면 고교의 하나인 성산고등학교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체제 개편 방향이 공식화됐다. 현재처럼 일반고 지위를 유지하면 서로 총 4개 학급을 'IB DP' (IB 고교 과정)와 '해양 직업계열 학과'로 2학급씩 병행하는 게 핵심이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25일 오후 성산포수협 복지회관에서 '성산고 국제 바칼로레아(IB) 도입 및 해양학과 재구조화 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결정을 공개했다. 한 학년에 일반과와 특성화과(해양산업과)를 2학급씩 운영하는 기존 체제를 유지하되, 일반과에 IB 고교 과정을 도입하고 특성화과를 재구조화하겠다는 것이다.

당초 도교육청은 일반고인 성산고를 '특성화고'로 전환한다는 계획이었다. 2024년 8월 고교체제 개편안을 발표하며 이 같은 내용을 공론화한 바 있다. 하지만 학과 구성과 운영 방식 등을 놓고 교육 공동체 안에서 의견이 엇갈린 데다 지역 중·고교 진학 수요에 따라 도내 고교 재배치 필요성이 제기되자

이를 보류했다.

결과적으로는 지난해 12월 성산고 모교체제개편위원회가 건의했던 2개 안 중 하나인 'IB 학과'와 '해양 관련 특성화과'로 전환하는 쪽으로 확정했다.

성산고에 IB가 도입되면 일반과는 물론 특성화과 학생들도 해당 교육을 받게 된다. 1학년 공통과목에 더해 2~3학년은 정규 교과목을 제외한 창의적 체험활동을 IB 과정으로 밟을 수 있다.

이번 설명회를 기점으로 성산고에선 '제주형 자율학교' (IB 학교) 신청을 위한 교육공동체 의견수렴이 시작될 전망이다. 학교 측은 자율학교 지정 신청에 더해 해양계열 특성화과를 어떻게 바꿀지 확정할 뒤 이를 교육청에 인가받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런 작업이 예정대로 오는 8월까지 이뤄진다면 9월부터 체제 개편을 뒷받침할 시설 개선, 교원 연수, 교과과정 편성 등이 추진된다. 개편된 교육과정이 전면 적용되는 시점은 2028년 3월 신입생부터다.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디지털 문해 교육 어떻게?"

도교육청, 교육자료 개발·보급

제주도교육청은 '제주 특화 디지털 문해력 교육자료'를 개발해 도내 모든 초·중학교에 보급했다고 25일 밝혔다.

교육자료는 초등 5~6학년용과 중학교용, 모두 2종으로 제작됐다.

지난해 10월부터 5개월 간 도내 초·중등 교사 18명이 집필에 참여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일상이 되는 시대적 변화를 반영해 도내 학생들이 디지털 기술을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구성한 자료다.

특징은 2022 개정 교육과정이 강조하는 '디지털 기초 소양'을 모든 교과 학습에 녹여냈다는 점이다. 특히 학생들이 정보를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뒀다.

제주의 자연과 문화, 역사적 자산을 학습 소재로 활용해 지역 정체성과 디지털 역량을 동시에 키울 수 있도록 한 것도 눈에 띄는 점이다. 이와 함께 교실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김지은기자



공공기관 차량 5부제 공공기관 차량 5부제 시행 첫날인 25일 제주시 연동 제주특별자치도청 정문에 안내판이 설치돼 있다. 강희만기자

고유가에 제주 대중교통 이용객 증가

3월 1~15일 237만7339명 수송 전년 같은 기간 比 8.8% 늘어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3월 1일부터 15일까지 대중교통 이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버스 수송 인원은 237만7339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8.8%(약 19만3000명) 증가했다고 25일 밝혔다.

제주도는 이용객 증가 원인으로 지속된 고유가와 청소년 무료 이용

정책을 꼽았다. 최근 제주지역 휘발유 가격은 l당 최고 1909원까지 올랐다.

제주도는 늘어나는 수요에 대응해 노선 운영 효율화에 나선다. 북권기금을 활용한 교통약자 이동권 지원 사업과 연계해 버스 정류장 등 기반 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혼잡 노선의 배차 간격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3월 넷째 금요일'은 '서해수호의 날'입니다.

우리의 바다 서해, 평화와 번영으로

제11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2026. 3. 27.(금) 10:00 | 국립제주호국원

제2연평해전

소령 윤영하

상사 한상국

중사 조진형

중사 황도현

중사 서후원

병장 박동혁

천안함 목침

중위 이창기

원사 최한권

원사 남기훈

원사 김태석

원사 문규석

상사 김경수

상사 안경환

상사 김중현

상사 민병기

상사 최정환

상사 정중윤

상사 신선준

상사 박경수

상사 강 준

상사 박석원

상사 임재범

중사 손수민

중사 심영민

중사 조정규

중사 방일민

중사 조진영

연평도 포격 도발

중사 문영욱

중사 박보람

중사 차근석

중사 이상준

중사 장진성

중사 서승원

중사 서대호

중사 박성근

중사 김동진

하사 이용상

하사 이상민

하사 이재민

하사 이상희

하사 이상민

하사 강현구

병장 장영구

병장 김성원

병장 안동업

병장 박정훈

병장 김선호

상병 강태민

상병 나현민

상병 조지훈

일병 정태준

일병 장철희

준위 한주호

하사 서정우

중령 문광욱

주관: 제주특별자치도재향군인회

후원: 제주특별자치도 국립제주호국원